

社會指標에 依한 福祉不均衡의 空間的 研究

裴 美 愛*

A Study on the Spatial Analysis of Welfare in Pusan, Korea.

Mee-Ae Bae*

요약 : 본 연구는 복지라는 개념자체를 문제성으로 인식하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주·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각 사회지표에 의한 복지공간의 특성을 밝히고 객관적 복지공간과 주관적 복지공간간의 불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객관적 사회지표에 의한 부산시의 복지상태는 공간적, 복지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주·객관적 복지상태의 불균형이 전지역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있어 분배의 우선권이 불균형적인 복지공간에 부여된다면 부산시에서 복지상태의 균형적인 분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복지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지역복지문제의 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主要語 : 복지불균형, 사회지표, 지역복지, 주·객관적 복지상태, 복지수준(복지상태, 적응상태, 불일치상태, 일탈상태), 분배정의

Abstract : This paper is mainly concerned with an understanding of spatial pattern of welfare by social indicators; thus an attempt for a social research is made to clarify spatial characteristics of welfare in Pusan through local welfare approach. The use of objective and subjective indicators simultaneously helps supplement the weakness which each of this indicators holds. The welfare level in Pusan showed various characteristics in the whole study area and in the all welfare sectors. Especially, the differences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welfare are found in the whole city. If the redistributional strategy is given to the priority among the welfare policies, it may be expected that the welfare level will be more equally distributed in Pusan.

Key Words : spatial inequality of welfare, social indicators, local welfare approach, obj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welfare level(well-being, adaptation, dissonance, deprivation), distributional justice.

1. 서 론

1) 연구목적

1960년대 부터 시작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개발의 지역적 불균형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거대공업지대의 조성과 경제중심의 지역개발과 도시재개발,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거주지 수요의 증대는 민간개발에 의한 무질서한 택지의 조성 과 위성도시의 인구 과밀화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주택난, 교통난 등과 같은 생활환경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이러

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경제외적 요소 즉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활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목표인 삶의 가치추구와 직결된다. 복지가 의미하는 인간의 물질적 생활의 향상과 정신적 내면생활의 풍요는 인간의 욕구중 가장 보편적인 욕구이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종합가치이다. 또한 복지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지역적인 평등성을 그 의미속에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평등성은 복지수요를 감안한 복지

*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시간강사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서비스의 균형적인 배분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복지분배의 지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복지수준의 평가를 통한 공간적인 구조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은 소득, 생산, 투자, 고용 및 소비 등과 같은 경제지표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그러나 경제지표의 한계성은 이용초기부터 경제학자간에 논의되어 왔고 경제수준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보편성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 기능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안으로 등장한 객관적인 사회지표도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생활의 질은 파악할 수 있어도 주민이 직접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생활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¹⁾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활용되고 있는 주관적 사회지표는 주민이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가 하는 생활경험에 관한 조사연구에 기초를 두고 주민이 경험한 복지를 직접적으로 타진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지표가 지닌 한계점을 해결하였다(Pacione, 1982, pp.496-497). 또한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지역복지적 접근방법²⁾의 등장은 주관적 사회지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복지에 대한 기존의 지리학적 연구들은 다양한 경제 및 사회지표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데 치중하였다.³⁾ 그러나 객관적 지표에 의한 복지공간 연구의 한계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라는 개념자체를 문제성으로 인식하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주·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각 사회지표에 의한 복지공간의 특성을 밝히고 객관적 복지공간과 주관적 복지공간간의 불균형의 특성과 원인을 해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복지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지역복지문제해결의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복지적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활성화시킬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권역을 대상으로 한 복지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더우기 복지를 지

역복지수준평가와 지역적 분배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은 학문적 의의가 있음은 물론 현대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의사회실현과 국가하부지역발전을 위한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연구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하여 지역구분을 통하여 복지단위지역을 설정하고 주·객관적 복지공간의 상대적 우위성을 기술하고 객관적 복지공간과 주관적 복지공간간의 불균형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객관적 사회지표에 의한 비교연구에서 문제시되는 지역규모의 일치문제(Pacione, 1982, p.508)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분석의 선행작업으로서 경제지표 및 기타 사회·보건의지표에 의한 1·2차 지역구분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하여 실행하였다. 지역구분은 등질지역으로 집단화함으로써 경계가 불분명한 인지공간과 행정공간의 불일치로 인한 복지비교의 문제를 다소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군집분석에는 일부 매우 높은 변수값을 가진 지표에 의해 복지공간의 특성이 주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수들의 분산값을 동일하게 한 순위지수가 이용되었다.

(2) 주·객관적 복지공간의 비교를 위하여 서로 다른 척도에 의한 측정치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객관적 부문은 단위지역별 평균순위지수를, 주관적 부문은 평균값을 표준화하였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두 표준점수간의 상대복지계수와 변동계수를 추출하여 주·객관적 지표의 우위성에 초점을 두고 비교복지공간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주·객관적 복지간의 불균형을 지역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상대복지계수의 절대치인 불균형계수를 산출하여 지도화를 통해서 불균형의 심화정도와 공간적 패턴을 살펴보았다. 마

표 1. 복지수준(welfare level)

		주관적 복지상태	
		양호	불량
객관적 복지상태	양호	복지(well-being)	불일치(dissonance)
	불량	적응(adaptation)	일탈(deprivation)

표 2. 복지부문별 주·객관적 지표

부 문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경 제	제조업체 비율 제조업종사자비율 서비스업체 비율 서비스 종사자비율 시장수(인구 1000명당) 은행당 대출액 은행당 예금액 인구 1인당 새마을 금고자산 슈퍼마켓수(인구 1000명당) 사업체 평균규모 총사업체 비율 총종사자 비율 인구당 은행수(인구 1000명당)	소득 만족도 자가용 보유여부 은행 만족도 노후보장보험 선호도 상가 형성 여부 공장 설립 희망 여부 여가의 경제적 여유 여유자금 예금 유무 소득세 부담감 백화점 선호도 외국여행 빈도
주 택	아파트 대지비율 아파트 세대비율 '26평'이상 아파트 세대비율 '10층'이상 아파트 세대비율 연립주택대지비율 연립주택세대비율 다세대주택대지비율 다세대주택세대비율 총공동주택비율 시영주택 세대비율 주택재개발지 면적비율 평균가구원수	주택 만족도 좁은 주택 불편도 주택 내구 연한 동일지역 거주 선호 주택유지비용 부담감 주택 수리할 곳 주택의 통근지장 여부 주택의 휴식처 여부 거주 등 전월세 고가 여부
교 육	유치원 취원율 교사 1인당원아수(유치원) 교사 1인당학생수(국교) 학급당학생수(국교) 학생1인당교지면적(국교) 교사1인당학생수(중등) 학생1인당교지면적(중등) 학생1인당체육장면적(중등)	2부제 수업 여부 통학관련 만족도 시설만족도 사립국교 취학 여부 유치원 취원 여부 거주동 유치원 선호도 유치원 시설 만족도 유치원교사 자질 만족도 통학문제 걱정 여부 과외비용 부담감 대학 졸업 당위성 여부 대학졸업지원 여부
보 건	전문의비율 치과의사수(인구 1000명당) 의사수(인구 1000명당) 약국수(인구 100명당) 한의사수(인구 1000명당)	치과 만족도 약국 만족도 의료보험 가입 여부 전문의원 만족도 전문의 선호도 종합병원 선호도 전문의원 요구도 의료기관 종합 인식 자녀 체중 및 신장 자녀 비만도 입원경력 자신 건강 만족도 자녀 영양 공급 만족도
사 회	인구밀도 가정용연료보급수(인구 1000명당) 경로당 수용가능인구수 여가체육시설수(인구 100명당) 어린이 1인당 놀이터면적비율 취로사업비(생보대상자당) 공무원수(인구 1000명당) 생활보호대상자비율	신문보도 TV뉴스 시청 여부 놀이공간 여가 및 레저시설 노인들 배려 범죄 두려움 유흥 및 오락시설 자동차 소음 및 공해 빈곤가구 중산층 여부 동사무소 직원 친절도 빈 공터 유무

*주관적 지표중 일반적 만족도 지표로서 거주지만족도와 이웃관계만족도지표가 포함됨.

지막으로 W. Glatzer가 제시한 복지수준(welfare levels)의 개념적인 틀(Glatzer, W. & Michael, M., 1987, p.17)(표 1)에 기초하여 주관적 복지공간과 객관적 복지공간의 관계를 유형화하였다.

부산시 복지불균형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와 변수는 표 2와 같다. 객관적 지표는 경제·교육·주택·보건·사회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각 부문별로 10~13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총 46개의 변수가 지표로서 선정되었다. 주관적 지표는 설문지법⁵⁾에 의한 거주지만족도 및 객관적 복지부문과 일치시킨 복지부문별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구성되었다. 거주지만족도 측정지표로는 거주지만족도와 이웃관계만족도변수를, 복지부문별 만족도 측정지표로는 경제·주택·교육·보건·사회 등 5개부문의 57개 변수를 선정하였다.⁶⁾

복지공간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통계처리는

SPSS,PC+를 통하여, 도표와 그림작성은 각각 Excel과 Adobe Photoshop을 Macintosh II시를 통하여 실행하였다. 연구의 분석시점은 1993년말 현재이며, 단위지역은 1993년말 현재 부산시 231개 행정동에 의거하였다(그림 1).

2. 복지공간연구의 이론적 배경

사회지표가 질에 관한 정보의 생산이라는 관점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지표의 양적 측면에 대응하여 질적 표현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으며, 지표작성에 있어서도 사회적 조건에 대한 객관적 기술 못지 않게 주관적 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써 사회지표가 지니는 특성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Campbell, A. and Converse, P.E., 1972, p.10). 객관적 지표에 의한 주민의 복지수준 측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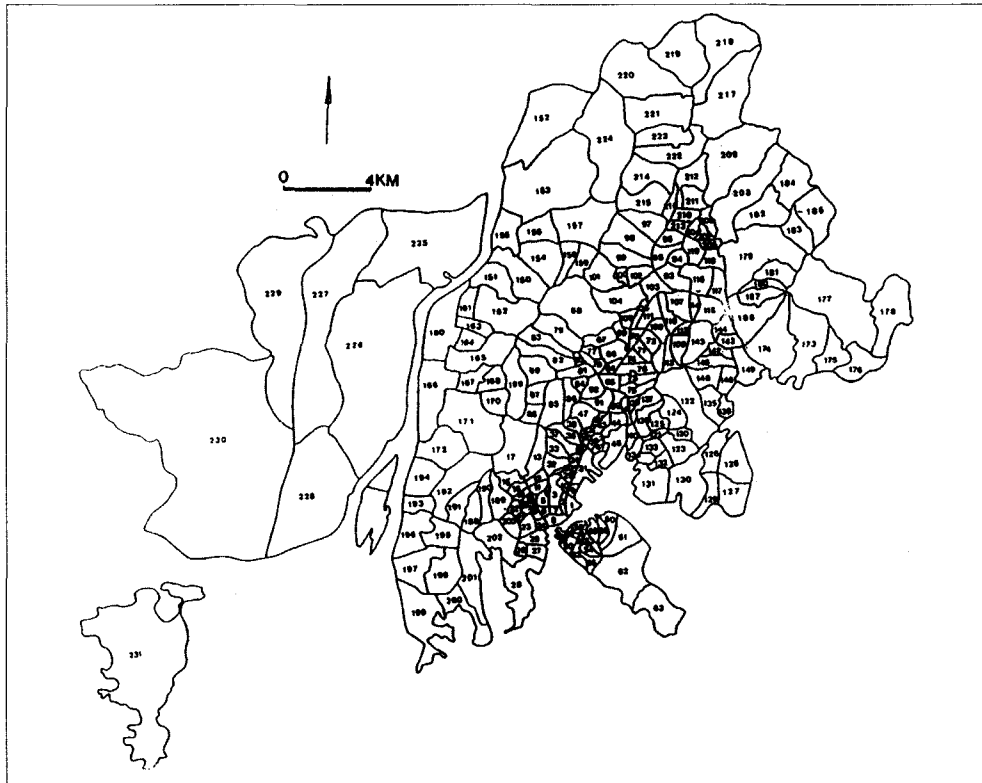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주) 각 번호의 동 명칭은 표 3을 참조.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생활상태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으나 주민이 직접 경험, 지각하는 생활상의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 등이나 생활에 관한 기대, 공포, 포부, 선호, 태도, 신뢰의식 등은 물론 실제 주민이 인식하거나 판단하는 생활상을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주관적 지표의 개발, 활용이 요구되어 왔다. 주관적 지표는 객관적 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생활경험에 관한 조사연구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주관적 지표가 지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해석, 완전성, 효용성과 같은 주관적 복지측정의 문제점⁷⁾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사회지표만큼 응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객관적 복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Pacione, M., 1982, pp.505-507). Land(1975)에 의하면 주관적 의식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지표는 한 나라의 사회적 조건을 측정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여 이를 보고하고 정책결정에 기여한다는 지표의 기본적 기능외에도 객관적 조건에 대한 개인 수준에 있어서의 분배문제와 의식수준이 문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주관적 지표가 갖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사회지표는 객관적인 사회,물리적 조건의 측정, 주관적인 가치관계, 주관적 복지 의식 등이 병행되어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Land, K.C., 1975; 강동식, 1990, p.475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는 한 형태의 사회지표에 의한 연구가 다른 형태의 지표에 의한 공간 특성의 해석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객관적 사회지표를 병행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초기 연구로 Kuz(Kuz, T.J., 1978)의 캐나다 남부 Manitoba의 77개 중심지를 34개 변수(21개의 객관적 변수와 13개의 주관적 변수를 사용)로 주성분분석하고 생활수준지수를 산출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객관적 지수와 주관적 지수간의 상관관계가 0.07로 거의 통계적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Dale(Dale, B., 1990)은 노르웨이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 객관적 복지와 주관적 복지의 상관정도는 분석규모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객관적 지수의 통계적 관련성은 지역규모에 따라서 의미

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Knox와 Cottman (Knox, P. & Cottman, M.B., 1981)은 스코틀랜드 고산지역의 연구를 통해 객관적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우월성, 애정의 사회 공간적 패턴이 복지 지리의 핵심이 됨을 주장하였다. 그의 영국 county의 만족·불만족의 공간변이 연구(Bentham, G., 1986), Glasgow의 복지연구(Pacione, M., 1896)등 주·객관적 지표를 병행한 다양한 연구들이 행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리학적 관점에서 주·객관적 지표를 병행하여 복지공간을 연구한 몇몇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최병두(최병두, 1981)는 지리학적 문제점 중 지역복지라는 측면을 '생활수준'과 '욕구'라는 개념을 각기 객관적, 주관적인 개념으로 끌어 들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역구조를 주·객관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김영성(김영성, 1984)은 여주지역을 대상으로 주·객관적 생활부문을 주거, 환경, 교육, 보건, 위생, 교통, 통신, 문화, 여가, 재정 부분으로 일치시켜 객관적인 복지상태와 주관적인 만족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김해식(김해식, 1985)은 한국 도시생활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도시정부 정책의 객관적인 향상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은 행복의 대상이 되는 포괄적인 생활조건체계를 구성하는 주관적인 만족도지표 6개와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31개 도시의 생활의 질을 측정하여 등급별로 비교하였다. 이상의 연구동향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주·객관적 지표를 병행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주·객관적 지표에 의한 공간특성을 각기 독립된 부분으로 인식하고 두 지표간의 관련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주·객관적 복지공간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의미도 크지만 주·객관적 지표를 병행한 연구에서 두 복지공간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간과한다는 것은 그 비교연구의 의의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적인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주·객관적 지표에 의한 비교분석을 통한 두가지 측면의 복지공간간의 불균형과 복지차원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지표를 이용한 복지공간분석에 있어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비교연구를 위한 지역구분

1) 지역구분 및 단위지역의 성격

비교복지공간연구를 위한 단위지역은 비교분석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의 하나인 지역규모일치의 문제, 즉 개인적인 인지공간이 행정 단위에 한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역구분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경제 및 사회·보건 복지의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여러 개의 동을 하나의 단위지역으로 선정한다면 1개 혹은 적은 수의 동단위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지역 규모에 따른 인지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지역은 복지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사회의 여러 부문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에 의하여 지역 체계를 이루며, 이러한 부문들의 결합관계의 형태에 의하여 복지지역의 특성이 규정된다. 따라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 중 경제·주택·교육·보건·사회 부문을 선정하여 이와 연관된 지표들을 군집분석하여 유사한 복지특성을 지닌 등질지역을 단위지역으로 선정하였다.⁸⁾

지금까지 부산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경제기능, 특히 2·3차 산업이 담당하고 있고 부산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요인이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지역은 복지의 지역구조가 다른 복지 부문보다는 2·3차 산업 지표로 구성되는 경제부문에 의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복지부문의 지표를 기준으로 군집분석하여 지역을 1차적으로 구분하였다. 인간의 생산활동은 생활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제수준은 소비를 전제로 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의 욕구충족 등과 상관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복지와 삶의 질에 직결된다. 따라서 경제지표는 주요 복지현상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단일지표에 의해 구분된 복지지역은 2차적으로 행해질 사회·보건지표에 의한 복지지역구분의 기준지역이 되고 지역의 복지구조에 대한 설명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의 인지는 경제부문 뿐 아니라 경제외적 부문도 포함한다. 따라서 1차지역구분에 의한 지역들을 주민이 인지하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고려하고 최근에 복지평가에 있어 경제

부문에 비하여 그 의미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기타 인구, 사회, 주택, 보건, 교육부문과 관련된 지표를 기준으로 2차 지역구분을 함으로써 비교복지연구의 단위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표 3)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부산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지역은 유사한 복지특성을 지닌 3개의 단위지역, 즉 남포동형, 남천동형, 광안동형으로 2차 구분되었다. 남포동형은 도심과 부심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남천동형은 주거밀집지역으로서 하위 지역중심지이다. 광안동형은 남천동형과 남포동형의 주변지역들로 주로 구성된다. 주거-서비스업지역은 구포동형, 괴정동형, 명장동형, 수정동형, 가락동형의 모두 5개 단위지역으로 구분되고 경제지표에 의한 1차 지역구분에서 그 특성이 규명된 바와 같이 부산의 주거밀집지역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구포동형과 괴정동형은 도심주변의 점이지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인 명장동형, 수정동형에 비해 다소 소득수준이 높은 주거밀집지역이다. 가락동형은 1차산업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선동, 가락동, 천가동 등이다. 주거-제조업지역은 용호동형, 재송동형, 만덕동형, 봉래동형, 반송동형, 송정동형의 6개 단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제조업지역은 감전동형, 부곡동형, 대평동형, 금곡동형, 대저동형의 5개 지역으로 2차 구분되었으며 경제지표에 의한 1차 지역구분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전체적인 특성이 규명된 바 있다. 대저동형, 금곡동형과 비교하여 감전동형 및 부곡동형의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저동형은 1차산업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강서구의 대부분 지역이다.

2) 단위지역의 복지부문별 특성

주·객관적 지표에 의한 복지수준의 공간적 비교를 위한 전 단계로서 주·객관적인 복지수준의 일반적인 특성을 복지부문별로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부문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기술을 통하여 주·객관적인 복지공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발견하여 비교복지공간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단위지역별로 주관적 지표에 적용된 등간척도에 의한 득점의 평균값(means)⁹⁾을 대표값으로

표 3. 비교복지연구의 단위지역

서비스업 지역(A)	A1	남포동형	동대신3동(13), 중앙동(1), 토성동(20), 초량3동(31), 수정2동(35), 광복동(7), 남포동(8), 장전3동(216), 동광동(2), 대청동(3), 범일2동(44), 봉래2동(57), 범천1동(90), 부전1(64).부전2동(65), 양정3동(71), 전포2동(74), 명륜1동(95)
	A2	남천동형	대연5동(124), 남천1(135).남천2동(136), 중1동(175), 수민동(93), 은천1(97).은천2동(98), 대연3동(122), 민락동(149)
	A3	광안동형	동대신1동(11), 서대신1동(14), 충무동(24), 초량2동(30), 대교동(48), 영선1동(51), 부평동(6), 영주1동(9), 부민동(19), 남부민1동(25), 초량1동(29), 좌천1동(39), 범일1동(43), 연산4(110).연산5동(111), 수영동(142), 광안2(146).광안3동(147), 전포4동(76), 신평2동(196), 다대2동(200)
주거-서비스업 지역(B)	B1	구포동형	연산9동(115), 구포1(150).구포2동(151), 덕천1동(154), 우1동(173), 당리동(192), 남산동(221), 구서2동(223), 당감3동(82)
	B2	괴정동형	대연2(121).대연6동(125), 서대신2동(15), 아미1(21).아미2동(22), 보수1동(4), 신선1(53).신선3동(55), 양정3동(71), 전포3동(75), 장전2동(215), 초량4동(32), 수정2동(35), 사직2동(101), 망미1동(143), 광안1동(145), 괴정1(188).괴정3동(190), 영선2동(52), 개금2동(88)
	B3	명장동형	영주2동(10), 중2동(176), 청룡동(220), 연산3동(109), 대연4동(123), 반송1동(183), 서1동(204), 암남동(28), 청학2동(61), 명륜2동(96), 명장2동(119), 괴정2동(189), 동삼1동(62)
	B4	수정동형	감천2동(167), 초장동(23), 남부민2동(26), 초량6동(33), 수정3(36).수정4(37).수정5동(38), 좌천2(40).좌천4동(42), 범일6동(47), 신선2동(54)
	B5	가락동형	서대신4동(17), 선동(217), 가락동(229), 천가동(231)
주거-제조업 지역(C)	C1	용호동형	안락1동(116), 용호1(126).용호4동(129), 광안4동(148), 덕포1동(163), 주례3동(170), 초읍동(68), 가야2동(85), 개금3동(89), 복산동(94), 은천3동(99), 사직1동(100), 연산6(112).연산8동(114), 안락2동(117), 괴정4동(191), 서3동(206)
	C2	재송동형	만덕1동(157), 반여2동(180), 재송1동(186), 하단1동(193), 장전1동(214), 구서1동(222), 당감1동(80)
	C3	만덕동형	화명동(153), 덕천2동(155), 만덕2(158).만덕3동(159), 엄궁동(172), 반여1동(179), 다대1동(199), 감천1동(202)
	C4	봉래동형	연산2(108).연산7동(113), 동대신2동(12), 문현1(137).문현2동(138), 서대신3동(16), 서4동(207), 범일4동(45), 보수2동(5), 범천1동(90), 연지동(67), 양정1동(69), 부암1동(77), 가야1동(84), 대연1동(120), 감만2동(132), 봉래1(56).봉래3(58).봉래4동(59), 청학1동(60), 부암3동(79)
	C5	반송동형	거제1동(103), 감만1동(131), 우암1동(133), 부곡1동(210), 당감4동(83), 덕천3동(156), 모라2동(162), 반여3동(181), 반송2(184).반송3동(185), 재송2동(187)
	C6	송정동형	거제4동(106), 좌동(177), 송정동(178), 금성동(224), 동삼2동(63)
제조업 지역(D)	D1	감전동형	거제2동(104), 용당동(130), 삼락동(160), 주례2동(169), 가야3동(86), 모라1동(161), 괘법동(165), 감전1(166).감전2동(167), 개금1동(87), 장림1동(197), 구평동(201), 금사동(208), 범천2동(91)
	D2	부곡동형	사직3동(102), 문현3동(139), 망미2동(144), 서2동(205), 부곡4동(312), 연산1동(107), 용호3동(128), 덕포2동(164), 주례1동(168), 학장동(171), 우2동(174), 하단2동(194), 신평1동(195), 장림2동(198), 부곡2(211).부곡3동(212)
	D3	대평동형	거제3동(105), 용호2동(127), 문현4동(140), 부용동(18), 남부민3동(27), 대평동(49), 남향동(50), 양정2동(70), 전포1동(73)
	D4	금곡동형	우암2동(134), 문현5동(141), 석대동(182), 좌천3동(41), 범일5동(46), 부암2동(78), 당감2동(81), 범천4동(92), 금곡동(152), 오륜동(209)
	D5	대저동형	두구동(218), 노포동(219), 대저1(225).대저2동(226), 강동동(227), 명지동(228), 녹산동(230)

*()안은 그림 1의 동별 번호를 나타낸 것임.

선정하고 객관적 지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평균 순위지수(index of mean rank)¹⁰⁾를 계산함으로써 비교복지공간연구에 있어서 문제점중의 하나인 척도일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를 도구로 일반적인 부문별 복지특성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객관적 복지수준(그림 2)은 모든 부문에 걸쳐 평균이상의 복지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주택복지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 사회, 경제, 보건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은 서비스업지역인 남포동형과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거나 비중이 높은 주거-제조업지역과 제조업지역인 감전동형, 봉래동형, 감전동형, 대평동형에서 높은 복지수준을 나타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거-서비스업지역이 평균이하의 낮은 복지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낮은 제조업비중과 고밀도의 주택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1차산업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가락동형이 가장 낮은 복지수준을 나타냈다.

주택부문은 다른 복지부문에 비하여 다소 높은 객관적 복지수준을 나타냈고 대저동형만을 제외한 모든 단위지역이 평균이상의 복지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대저동형은 두구동, 노포동 등의 금정구 일부지역과 대저1.2동, 강동동, 명지동, 녹산동 등의 강서구 지역으로 주택복지변수인 공동주택변수의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주택복지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부곡동형, 명장동형, 구포동형, 재송동형의 복지수준이 다

른 지역에 비하여 다소 낮았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지역 및 제조업지역과 비교하여 주거-서비스업지역과 주거-제조업지역의 복지수준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문은 전체적으로 평균이상의 높은 복지수준을 나타냈는데 빈곤지역이면서 도심주변의 과잉인구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명장동형과 수정동형, 공단지역인 부곡동형만이 평균이하의 낮은 교육복지수준을 나타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낮은 복지수준은 도심주변의 접이지대와 저소득의 고지대주거지역, 공단지역 등에서 나타났다. 도시주변부에 해당되는 지역이 높은 교육복지수준을 나타낸 것은 도시내부의 학교들이 학교부지확보나 교통문제 등으로 도시주변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부문은 복지수준의 단위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남포동형과 인구밀집주거지역인 봉래동형의 보건복지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명장동형, 대저동형의 복지수준은 매우 낮았다. 남포동형은 도심과 부심의 의료시설의 집중으로, 봉래동형은 주거밀집으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집중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심지역과 비교하여 주변부에 포함되는 단위지역의 보건복지수준이 낮은 것은 의료수급의 불균형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부문은 빈곤과 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급과 관련되고 괴정동형, 가락동형, 봉래동형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결여로 인하여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복지수준이 낮은 지역은 사회서비스시설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락동형이고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및 제조업지역보다 주거기능과의 혼합지역에서 복지수준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서비스업지역은 객관적 복지부문 전반에 걸쳐 복지수준이 평균이상이며 특히 보건부문에 대한 복지수준이 매우 높았다. 주거-서비스업지역은 구포동형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이 보건부문의 복지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주택 및 교육부문의 복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제조업지역에서 보건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현격하며 재송동형, 반송동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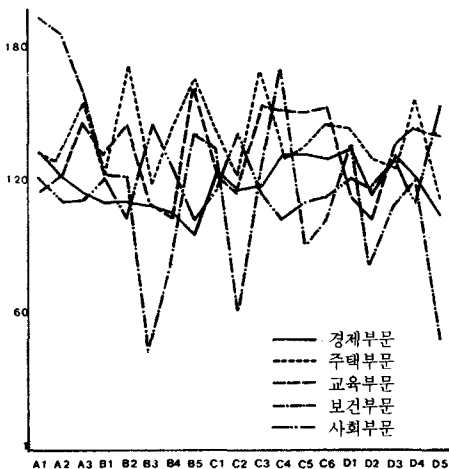


그림 2. 객관적 복지부문의 단위지역별 평균순위지수

보건부문과 봉래동형의 사회부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위지역에서 부문별로 평균이상의 복지수준을 나타냈다. 제조업지역은 다른 부문보다 보건부문의 복지수준이 객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부곡동형의 교육부문과 금곡동형의 사회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평균이상의 복지수준을 나타냈다.

주관적 복지수준(그림 3)은 보건과 교육부문에서 만족도가 높게, 경제부문에서 낮게 나타났고 주택과 사회부문은 평균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변동계수의 분산이 객관적 복지는 0.09~0.36, 주관적 복지는 0.02~0.05로서 객관적 복지의 부문간 격차가 주관적 복지보다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부문은 평균 2.04~2.49의 분산으로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부산 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이로 인한 저소득가구의 증가 및 소득의 불확실성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객관적 수준이 낮았던 명장동형(B3)의 주관적 복지수준은 가장 낮았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서비스업지역의 경제부문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부문은 평균 2.36~2.59의 분산으로서 비교적 낮은 복지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남포동형, 남천동형, 광안동형 등의 서비스업지역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제조업지역 대부분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고 인구가 조밀한 부곡동형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교육부문은 주관적 복지수준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가장 높고 단위지역별 평균 2.59~3.09의 분산으로서 전지역에 걸쳐 평균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부산 주민의 대부분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주거-서비스업지역의 교육복지수준은 높았으며 서비스업지역, 주거-제조업지역은 각 지역별로 상이한 패턴을 나타냈다.

보건부문은 평균 2.44~2.59분산으로서 대저동형을 제외한 전지역이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대저동형의 낮은 만족도는 의료인양성기관의 부족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비중으로 인한 소수의 의료시설공급으로 설명될 수 있다. 남포동형, 남천동형, 광안동형 등 서비스업지역의 높은 만족도는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자유개업체에 의한 의료수급의 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의료시설의 과잉공급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명장동형, 재송동형, 부곡동형의 저소득주거지역과 일부공단지역은 의료시설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사회부문은 평균 2.31~2.61의 분산으로서 주택부문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고 절반에 가까운 지역들이 평균이하의 만족도로 평가되었다. 서비스업지역은 전 지역에 걸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나머지 주거-서비스업지역, 주거-제조업지역, 제조업지역은 만족도수준이 각 단위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회부문의 가장 높은 만족도 지역은 명장동형, 가장 낮은 지역은 재송동형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서비스업지역은 경제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고 교육부문과 보건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주택부문이나 사회부문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 주거-서비스업지역은 교육과 보건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경제, 주택, 사회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특히 명장동형의 경제부문만족도는 매우 낮으며 구포동형도 교육, 보건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주거-제조업지역도 경제부문의 만족도가 낮았고 용호동형, 재송동형과 비교하여 만덕동형, 봉래동형, 반송동형, 송정동형 부문별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만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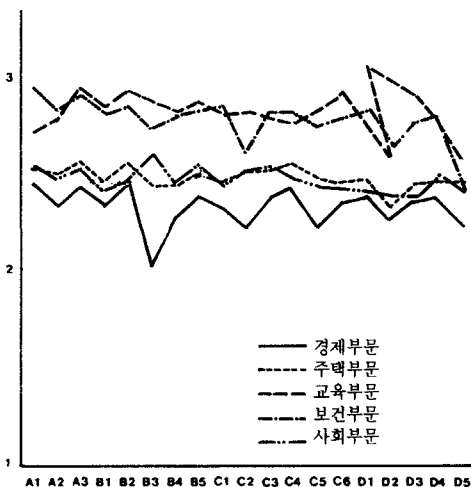


그림 3. 주관적 복지부문의 단위지역별 평균값

형, 봉래동형은 경제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지역은 교육, 보건 부문에서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대저동형은 보건부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단위지역중 가장 낮았고 교육과 사회부문을 제외한 기타 부문의 만족도도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감전동형, 부곡동형, 대평동형은 경제, 주택, 사회부문에서 평균이하의, 금곡동형과 대저동형은 사회부문에서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4. 비교복지공간의 패턴과 특성

1) 복지수준의 비교우위 공간

각 단위지역의 주관적 복지수준과 객관적 복지수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우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단위를 객관적 지표는 부문별 평균순위지수로서, 주관적인 지표는 부문별 평균값으로서 정하고 서로 다른 측정단위를 객관화시키기 위하

표 4. 단위지역별 상대복지계수

단위지역	부문				
	경제	주택	교육	보건	사회
A1	-.03	-1.01	.02	.37	-.37
A2	.04	-.89	-.23	1.12	-.50
A3	-1.70	-.68	-.12	-.14	-.99
B1	-1.02	-.50	-.32	-.18	.80
B2	-1.91	.29	-.18	-.52	-.78
B3	1.89	-.13	-1.41	.07	
B4	-.66	1.35	-1.59	-.97	.07
B5	-2.54	1.21	1.13	.27	-2.27
C1	.34	.15	-.49	-.26	.32
C2	.82	-1.46	-1.01	.24	4.18
C3	-.61	.85	1.36	-.20	-.82
C4	.22	-1.86	1.47	.95	-1.90
C5	2.14	-.21	.77	-.42	-.84
C6	.77	1.53	.24	-.45	-.11
D1	.94	.64	-3.10	.01	.14
D2	.53	1.10	.23	.16	.77
D3	1.19	-.21	-.38	.04	1.48
D4	-.11	1.16	.89	-.10	-.99
D5	-.29	-1.34	2.49	1.50	1.33

여 표준점수로 환산한 후 상대복지계수(coefficient of relative welfare level)¹¹⁾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의 수치는 객관적 복지수준의 우위성을, -는 주관적 복지수준의 우위성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두 지표범주간의 상대복지계수는 단지 객관적 복지공간에 대한 주관적 복지공간의 상대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을 뿐, 절대적인 복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 4에서와 같이 사회부문의 상대복지수준은 -2.27~4.18의 분산으로서 지역간 격차가 가장 심하였고 보건부문은 -1.41~1.50의 분산으로서 다른 부문에 비하여 지역간 격차가 적었다. 그리고 주택부문(-1.86~1.53), 경제부문(-2.54~2.14), 교육부문(-3.10~2.49)의 순으로 지역간 차이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주·객관적 복지수준 각각의 우위성은 부문별로 유사하였다.

경제부문(그림 4)은 지역간 주·객관적 복지의 상대적인 우위성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다소 미약하였고 주관적 복지수준에 비하여 객관적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명장동형, 용호동형, 재송동형, 봉래동형, 반송동형, 송정동형, 감전동형, 부곡동형, 대평동형 등 주거-서비스업 및 주거-제조업지역들이다. 이와는 달리 주관적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광안동형, 구포동형, 괴정동형, 수정동형, 가락동형, 만덕동형, 대저동형의 서비스업지역으로 제조업지역과 비교하여 주관적 복지수준이 높다. 객관적 복지수준의 우위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반송동형이고, 주관적 복지수준이 우위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락동형이다. 그리고 남포동형, 남천동형, 금곡동형은 복지수준의 상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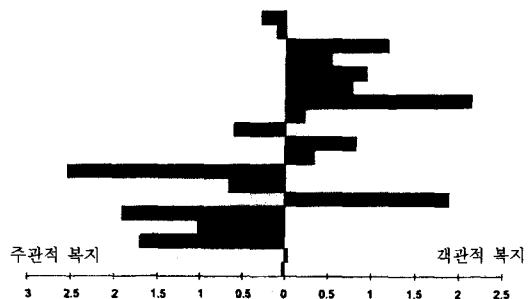


그림 4. 단위지역별 상대복지계수(경제)

우위성이 없었다.

서비스업지역 및 주거-서비스업지역의 주관적 복지의 우위성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서비스업이 주축을 이루는 경제기반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의 객관적 복지수준의 우위성은 제조업체의 집중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불만족하고 있는 데 이것은 객관적 경제요인이 실질적인 개인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산시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장대신 상가가 형성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제조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희망도가 높은 것은 위와 같은 경제복지수준의 상대적 우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지표는 객관적 경제복지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지나나 지역주민이 실제 경제복지수준을 인지하는 데 있어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부산의 경우에는 객관적 복지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로서 제조업 이외의 다른 대용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재래시장에 비하여 백화점을 선호하는 경향, 여가의 경제적 여유, 소득만족도, 외국여행의 빈도가 주거-제조업 및 제조업지역에 비하여 서비스업 및 주거-서비스업지역이 월등히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이는 이 지역 주민의 상대적인 주관적 만족도의 우위성과, 서비스업 위주의 지역경제기반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연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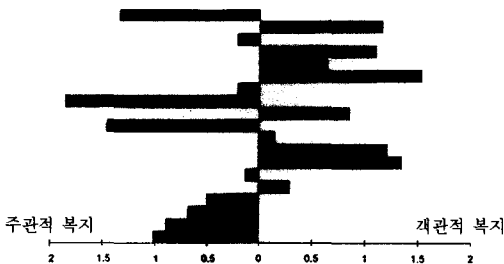


그림 5. 단위지역별 상대복지계수(주택)

주택부문(그림 5)은 경제부문과 비교하여 주·객관적 복지수준의 상대적 우위성이 미약하였다. 객관적 복지수준이 주관적 만족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수정동형, 가락동형, 송정동형, 부곡동형, 금곡동형 등이고, 객관적인 복지수준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재송동형, 봉래동형, 대저동형, 남포동형이며, 명장동형과 용호동형에서는 주·객관적 복지수준이 상대적 우위성이 미약하였다. 서비스업지역은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주택환경과 비교하여 주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주택부문의 객관적 복지수준은 타 부문과 비교하여 높으며 주거-제조업지역 및 제조업지역보다 서비스업 및 주거-서비스업지역의 복지수준이 높았고 특히 광안동형, 괴정동형, 가락동형, 만덕동형, 금곡동형이 높다. 그러나 광안동형만이 양호한 객관적 주택수준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나머지 괴정동형, 명장동형, 만덕동형, 금곡동형은 객관적인 상태에 비하여 주관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유사한 객관적 상황이라도 지역에 따라 주민의 인지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지역은 주·객관적 주택복지의 비교분석에서 주관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이 높은 주택가격과 좁은 주택공간으로 주택상황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경향은 강하나 도로접근성으로 인한 통근의 용이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불편한 부분에 대한 불만을 상쇄시키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송동형, 봉래동형, 대저동형에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재송동형은 주택만족도에서, 봉래동형은 주택의 휴식처로서의 인식도에서, 반송동형은 동일지역거주선호도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음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재송동형 및 대저동형은 주택가격이 낮은 도시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좁은 주택공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타 지역에 비하여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정동형, 송정동형, 감전동형, 부곡동형은 객관적 수준도 낮고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데 이 지역주민들은 40%이상이 동일지역에 거주하기를 희망하지 않으며 특히 부곡동형 주민의 60%이상이 거주지를 다

른 곳으로 옮기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수정동형과 부곡동형 지역 주민들의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교육부문(그림 6)은 경제 및 주택부문과 비교하였을 때 주·객관적 복지의 상대적 우위성이 매우 분산적이고 서비스업지역에서 제조업지역으로 갈수록 객관적 복지수준이 타월하다. 감전동형은 지역의 불량한 교육환경에 비하여 주민의 대부분이 아주 만족하는 것으로 인지되었고, 대저동형은 객관적 환경에 비하여 주민의 불만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되었다. 남포동형은 주·객관적 복지수준이 거의 일치하였고, 가락동형, 만덕동형, 봉래동형은 객관적 복지수준이, 수정동형, 재송동형은 주관적인 복지수준이 각기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순위지수에 의한 객관적 교육복지수준은 광안동형, 괴정동형, 가락동형, 만덕동형, 봉래동형, 반송동형, 송정동형, 금곡동형, 대저동형에서 높았고 수정동형, 부곡동형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주관적 만족도와 비교하면 전자의 만족도는 낮으나 후자의 만족도는 높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자의 경우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고 후자의 수정동형은 통학에 대한 높은 만족도, 부곡동형은 유치원과 강하게 관련되었다. 그러나 객관적 교육복지와 주관적 교육복지간의 큰 차이는 객관적 교육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실제 주민이 생각하는 교육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대응지표가 필요하다. 부산의 경우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중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서 높은 것은 유치원은 주거지와 일치하나 중등학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보건부문(그림 7)은 다른 복지부문과 비교하여

주·객관적 복지의 상대적 우위성이 다소 미약하다. 특히 감전동형, 부곡동형, 대평동형, 금곡동형의 주·객관적 복지수준의 상대적 우위성은 아주 낮다. 도심과 부심을 포함하는 남포동형과 남천동형은 객관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대저동형의 객관적 복지수준의 상대적 우위성은 이 지역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객관적인 보건환경이 우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대로 명장동형, 용호동형, 만덕동형, 반송동형, 송정동형 등은 객관적인 보건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객관적인 보건복지의 지역적인 편중은 매우 크고 특히 도심 및 부심, 기타 지역중심지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지역은 의료시설의 집중으로 높은 복지수준이 높고, 도시주변 및 제조업지역은 복지수준이 낮다. 그러나 서비스업지역중 광안동형만이 평균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남포동, 남천동형은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이 지역의 의료시설집중이 주민들의 의료관련만족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시설의 양적 공급만이 지역의 의료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며 질적인 차원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명장동형과 재송동형은 객관적인 보건복지수준이 단위지역중 가장 낮은 데 명장동형의 매우 높은 만족도는 지역의 의료여건보다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서, 재송동형의 낮은 만족도는 의료시설공급의 부족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만족도로서 설명될 수 있다. 서비스업지역에서 제조업지역으로 갈수록 객관적 보건복지수준이 낮아지지만 용호동형, 만덕동형, 반송동형, 송정동형 등의 높은



그림 6. 단위지역별 상대복지계수(교육)



그림 7. 단위지역별 상대복지계수(보건)

상대적 만족도는 의료시설전반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충분한 양적 공급과 부산시 전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치과의원에 대한 높은 만족도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부문(그림 8)은 다른 복지부문에 비하여 주·객관적 복지수준의 상대적 우위성의 지역별 격차가 현격하였다. 재송동형은 객관적인 복지수준에 비하여 주관적 복지수준이 낮았고 반면에 가락동형은 객관적 복지수준에 비해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평동형, 대저동형 등은 객관적 복지수준이, 봉래동형은 주관적 복지수준의 상대적 우위성이 높았고 명장동형, 송정동형, 감전동형 등은 주·객관적 복지수준의 상대적 우위성이 미약하였다. 서비스업지역과 주거-제조업지역의 대부분이 주관적인 복지수준의 상대적 우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순위지수를 통하여 볼 때 객관적 사회복지수준은 타 부문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며 특히 명장동형, 재송동형, 대저동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은 거의 평균정도에 해당되고 괴정동형, 가락동형, 봉래동형의 사회복지수준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주관적 부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객관적 부문에서 우월한 지역들이 만족도가 낮고 열등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명장동형, 재송동형과 대저동형의 낮은 만족도는 자녀들의 놀이공간이나 여가 및 레저시설의 부족에 대한 불만으로 설명될 수 있고 특히 재송동형은 주관적 복지부문 전반에 걸쳐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괴정동형, 가락동형, 봉래동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유흥가적 분위기로 인한 피해 혹은 자동차 소음 및 공해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인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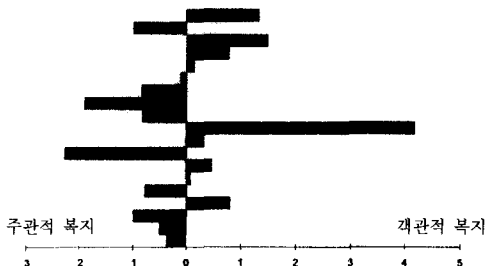


그림 8. 단위지역별 상대복지계수(사회)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부문에 대한 높은 만족도의 설명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역에서 제조업지역으로 갈수록 거주지 주변에 빈곤가구가 많다고 인식하며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주관적 지표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신문이나 T.V보도와 동사무소 직원의 친절에 대하여 다소 만족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사회부문의 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내용은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규정하는 관점에 따라서 매우 상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 쓰여진 사회지표는 포괄적인 사회복지 현상 중 일면만을 제시하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복지 불균형의 공간적 특성

복지지리학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적 목적은 복지현상의 지역적 불균형 및 주·객관적인 복지간의 불일치현상을 밝히고 분배적 정의의 원칙을 통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객관적 복지의 상대적 우위성과는 관계없이 이 두 범주간의 불균형¹²⁾이 심한 지역은 복지차원에서 문제지역으로 인식하여 그 원인을 밝혀 복지서비스 배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주·객관적 지표에 의한 비교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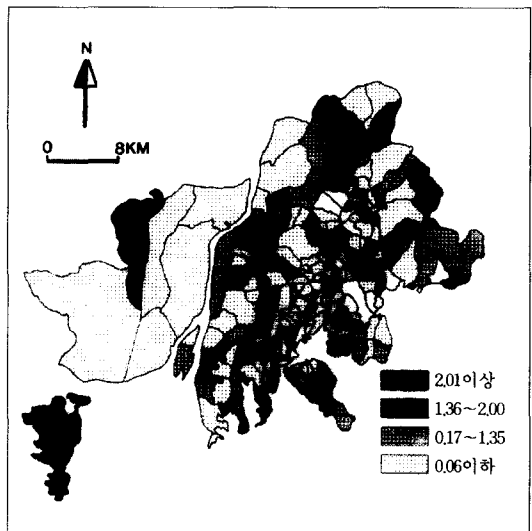


그림 9. 경제복지의 불균형

공간의 특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객관적 복지의 상대적인 우위성보다 불균형의 심화정도에 주안을 두어 지역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불균형의 복지부문간 심화정도와 공간적 패턴은 주·객관적 부문의 상대복지계수(표 4)의 상대적인 우위성을 배제한 절대치인 불균형계수¹³⁾를 산출하여 지도화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경제부문의 복지불균형은 그림 9와 같이 서비스업지역 및 제조업지역이 상대적으로 이들 업종의 비중이 낮은 지역보다, 도시주변지역이 도시중심보다 균형적인 경제복지상태를 나타냈다. 복지불균형은 가락동형에서 가장 높았고 남포동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동형은 객관적인 복지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만족도로서, 남포동형은 양호한 객관적 복지수준에 부응한 높은 만족도로서 설명된다. 광안동형, 구포동형, 괴정동형과 같이 객관적 복지수준이 다소 양호한 지역도 복지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양호한 객관적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명장동형, 반송동형, 부곡동형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매우 불량한 객관적 복지수준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거-제조업지역과 제조업지역에서 대평동형, 반송동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위지역들은 다소 낮은 객관적 경제복지수준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 평가를 내림으로써 균형적

인 경제복지상태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복지불균형의 분포패턴은 객관적으로 불량한 복지수준일지라도 반드시 불만스러운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주민인지에 의한 복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주택부문은 그림 10과 같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불균형의 심화정도가 덜하고 공간적인 격차도 다소 미약하며 불균형이 극심한 지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균형적인 상태를 나타냈다.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소 빈곤층에 해당하는 주거밀집지역인 재송동형, 봉래동형은 불균형이 타지역에 비하여 높았다. 서비스업 위주의 다소 소득이 높은 주거밀집지역인 구포동형, 괴정동형은 다소 균형적인 패턴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공간적인 패턴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혼합되어 있는 주거지역의 주택상태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단위지역인 봉래동형과 부곡동형보다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된 단위지역인 구포동형이 더욱 균형적인 패턴을 나타낸 것은 주택형태에 있어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가락동형의 다소 높은 불균형 상태는 객관적으로 낮은 복지상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린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괴정동형, 용호동형은 양호한 객관적 주택복지상태에 대해 주민이 대체적으로 만족함으로써 균형적인 복지상태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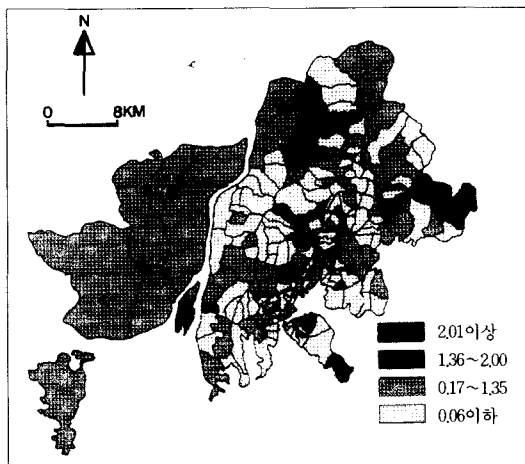


그림 10. 주택복지의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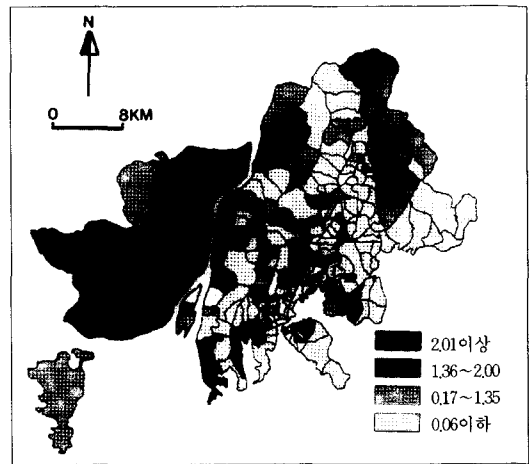


그림 11. 교육복지의 불균형

교육부문의 불균형 상태는 그림 11과 같이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다소 심한 편이며 공간적인 차이도 매우 현격한 패턴을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도시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보다는 도시주변지역, 공단 지역 등에서 심한 불균형을 나타냈다.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은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감전동형으로서 열악한 객관적 교육환경에 대하여 주민들이 매우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도시주변에 해당되는 가락동형과 대저동형의 불균형의 원인은 양호한 객관적 교육환경에 주민의 낮은 만족도로서 설명될 수 있고 주민의 교육에 대한 열의 및 교육인식도가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하여 낮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정동형과 봉래동형, 도심주변의 낮은 학교시설과 저소득가구의 밀집으로 인한 불량한 교육환경에 대하여 주민들이 매우 불만족한 평가를 내려 불균형의 정도가 심한 지역에 속했다. 서비스업지역의 전단위지역과 주거-서비스업의 대부분 지역들이 균형적인 패턴을 나타낸 것은 다소 양호한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이에 상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곡동형은 불량한 객관적 교육복지수준에 상응한 주관적인 평가를 내려 균형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복지수준이 거의 평균화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교육부문에서의 불균형의 심화와 지역적 편중은 지역에 따라 교육환경의 인지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건부문의 불균형의 정도는 그림 12와 같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며 거의 균등하게 분포된 공간적 패턴이 나타났다. 객관적인 보건복지의 지역적인 편중에도 불구하고 균형화되어 나타내는 것은 객관적인 복지수준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복지인지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저동형과 명장동형은 객관적 보건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이면서 단위지역중 가장 심한 불균형적 상태를 보인 것은 주민들이 지역의 보건환경에 대하여 객관적 수준보다 더욱 낮은 주관적 평가를 내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남천동형은 양호한 객관적 보건복지수준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만족도는 낮아 불균형 상태를 보였다. 주거-제조업지역 및 제조업지역은 낮은 객관적 보건복지수준에 상응한 주관적 평가를 내려 균형적인 패턴을 나타냈고,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불균형의 정도는 다소 심화되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부문은 그림 13과 같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불균형의 정도가 다소 미약하나 공간적 격차는 현격하게 나타났다. 부산시 전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낮은 객관적 사회복지수준에 상응한 낮은 만족도 평가를 내림으로써 균형적인 지역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거 및 서비스업지역보다 제조업지역 및 도시주변부의 불균형은 매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송동형은 다소 높은 객관적 사회복지수준과는 달리 주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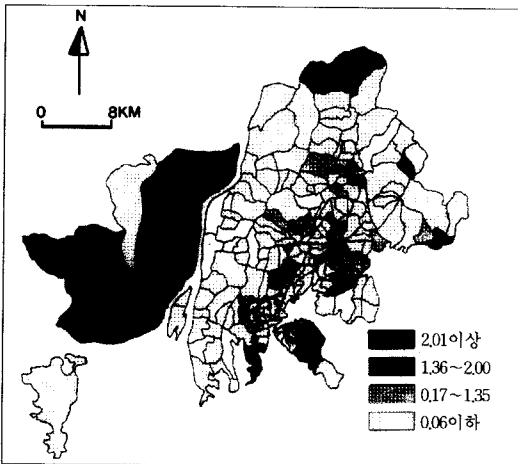


그림 12. 보건복지의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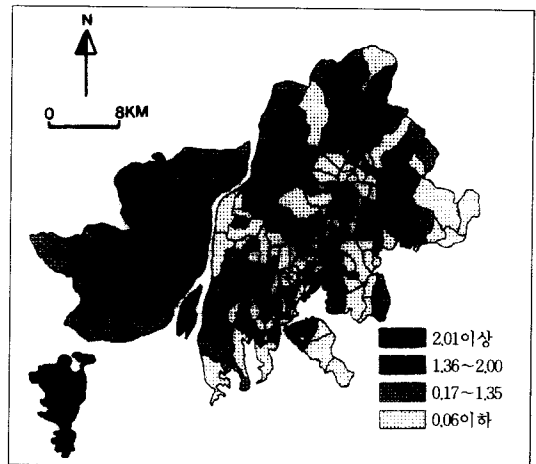


그림 13. 사회복지의 불균형

만족도는 매우 낮아 가장 불균형이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평동형과 대저동형은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봉래동형은 열악한 사회복지수준에 대해 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균형적인 상태를 나타냈다. 도심및 부심의 중심서비스업지역과 기타 서비스업지역, 주거-서비스업지역의 전 단위 지역은 이 지역의 낮은 객관적 사회복지수준에 상응한 만족도 평가를 내림으로써 균형적인 상태를 나타냈다. 부산시의 경우 다소 미약하기는 하여도 사회부문에서의 불균형의 심화는 도시지역에서의 일탈화를 조장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3) 복지수준의 공간적 유형

일반적인 가정은 “사람들은 더욱 나은 생활조건에서 명백히 더욱 만족할 것이다.”라는 것이지만 초기 연구에서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복지간에는 미약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는 데 이는 개인이 전체적인 면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불만족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고, 기대치는 환경보다는 분위기에 좌우되고, 불만족은 문화적으로 습득되어 실질적인 경험과는 다를 수 있고, 만족감은 새로운 가치기준에 의하여 항상 변하기 때문에 설명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관적 상태가 객관적 상태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주·객관적 부문간의 상관성은 성립되고 이 둘 부문간의 비교연구는 의미

를 가질 것이다.

주·객관적 부문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면 주·객관적 복지상태 비교에 의한 특성은 W. Glatzer가 제시한 개념적인 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표 1 참조). W. Glatzer은 객관적인 생활상태와 주관적인 인지 및 평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복지의 주·객관적인 상태를 각각 양호 및 불량한 상태로 구분하여 주·객관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할 때를 ‘복지(well-being)’의 상태로, 양호한 주관적인 상태와 불량한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는 ‘적응(adaptation)’의 상태로, 불량한 주관적 상태와 양호한 객관적 상태의 상황을 ‘불일치(dissonance)’로, 주·객관적인 복지상태가 모두 불량할 때는 ‘일탈(deprivation)’의 상태로 규정하면서 주·객관적인 복지의 비교연구를 통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적인 틀에 의거하여 부산의 주·객관적 복지수준을 각기 부문별로 양호지역과 불량지역으로 구분하여 단위지역별 특성을 살펴보았다(그림 14~18 참조). 양호지역은 주·객관적 각 부문별 평균순위지수와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상지역을, 불량지역은 이하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복지지역을 유형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그리고 복지개념을 사회적인 현상과 접촉시킴으로써 공간패턴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정된 유형이 부산지역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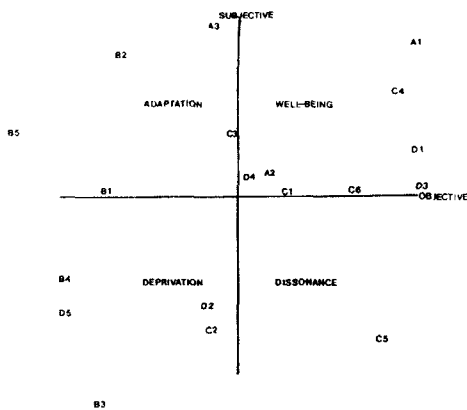


그림 14. 경제부문의 단위지역별 복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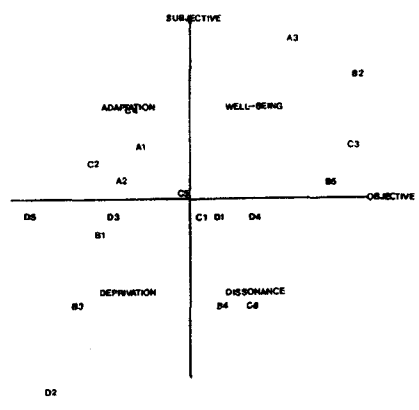


그림 15. 주택부문의 단위지역별 복지유형

대적인 의미를 지닐 뿐 타 지역과 비교가 가능한 보편화된 기준에 의한 절대적인 복지유형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복지상태가 양호한 '복지(well-being)'지역은 모든 부문에서 생활의 질이 높은 것으로 간주될 때 대부분의 주민은 이를 복지의 차원에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으로 복지상태의 가장 최상의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복지부문별 '복지'지역을 살펴보면 경제부문은 남포동형, 남천동형, 용호동형, 봉래동형, 송정동형, 감전동형, 대평동형, 금곡동형 등이고, 주택부문은 광안동형, 괴정동형, 가락동형, 만덕동형이, 교육부문은 광안동형, 괴정동형, 가락동형, 반송동형, 송정동형, 대평동형이 포함된다. 보건부문은 남포동형, 남천동형, 광안동형, 구포동형, 괴정동형, 가락동형, 용호동형, 만덕동형, 봉래동형, 감전동형, 부곡동형으로 나타나고 사회부문은 남포동형, 명장동형, 대저동형 등이 해당된다. 보건부문은 타 부문과 비교하여 '복지'의 범주에 속하는 지역이 가장 많고 주택부문과 사회부문은 다소 적은 지역이 포함된다. 서비스업 지역은 특히 보건부문에서 '복지'상태를 나타냈다. 괴정동형과 가락동형은 주택, 교육, 보건부문에서 모두 '복지'상태로 분류되었고 대저동형은 단지 사회부문에서만 '복지'상태를 나타냈다.

'적응(adaptation)'지역은 객관적인 복지수준은 다소 불량하지만 주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응'지역은 사회적인

무력함과 퇴보의 실체를 제시하지만, 이런 환경과는 달리 역설적으로 만족의 개념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복지부문별 '적응'지역을 살펴보면 경제부문은 광안동형, 구포동형, 괴정동형, 가락동형, 만덕동형 등이고 주택부문은 남포동형, 남천동형, 재송동형, 봉래동형, 반송동형이, 교육부문은 구포동형, 수정동형, 재송동형, 감전동형, 보건부문은 수정동형, 사회부문은 남천동형, 광안동형, 가락동형, 재송동형, 봉래동형, 반송동형, 금곡동형이 해당된다. '적응'에 속하는 단위지역의 수는 '복지'지역과 비교하여 적으나 타 부문에 비하여 사회부문의 '적응'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천동형은 주택과 사회부문에서, 광안동형은 경제와 사회부문에서 '적응'상태를 나타냈고 재송동형은 주택과 교육, 만덕동형은 경제와 사회, 반송동형은 주택과 사회부문에서 각각 '적응'지역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부산 전지역에 걸쳐 분포된 '적응'유형은 부산 주민들이 불량한 객관적 복지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만족도 평가를 내림으로써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불일치(dissonance)'지역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복지수준은 양호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불만족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지역이고 '항의'와 '변화'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부문별로 '불일치'지역을 살펴보면, 경제부문은 반송동형이 해당되고, 주택부문은 수정동형, 용호동형, 송정동형, 감전동형, 금곡동형, 교육부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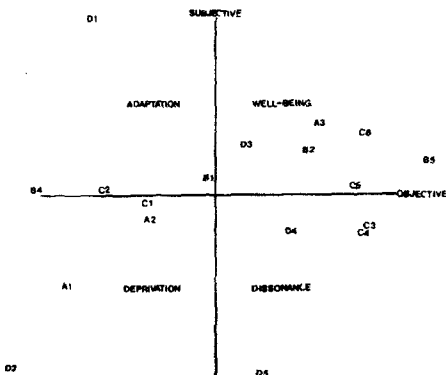


그림 16. 교육부문의 단위지역별 복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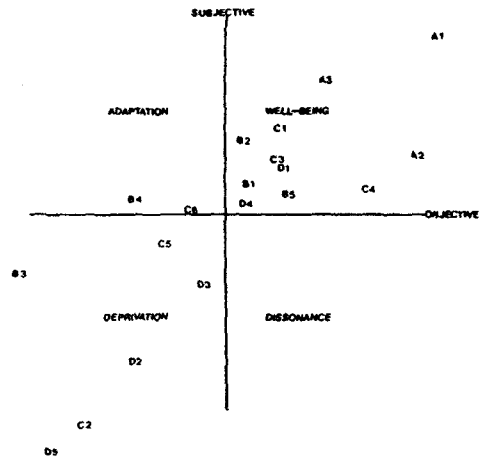


그림 17. 보건부문의 단위지역별 복지유형

만덕동형, 봉래동형, 금곡동형, 대저동형, 보건부문은 해당지역이 없으며, 사회부문은 구포동형, 수정동형, 재송동형, 대평동형이 포함된다. '불일치'지역은 복지유형의 타 범주와 비교하여 가장 적은 단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부문의 '불일치'지역은 전혀 분포하지 않았으며 경제부문도 단지 반송동형만이 '불일치'지역에 속했다. 또한 서비스업지역에 비해서 제조업지역의 '불일치'상태가 더욱 많이 분포했고 수정동형은 주택과 사회부문에서 '불일치', 즉 양호한 객관적 상태와 비교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탈(deprivation)'지역은 주로 사회정책의 목표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불량한 주·객관적 복지수준을 나타낸다. 복지부문별로 '일탈'지역을 살펴보면, 경제부문은 명장동형, 수정동형, 재송동형, 부곡동형, 대저동형, 주택부문은 구포동형, 명장3동형, 부곡동형, 대평동형, 대저동형, 교육부문은 남포동형, 남천동형, 용호동형, 부곡동형, 보건부문은 명장동형, 재송동형, 반송동형, 부곡동형, 대평동형, 대저동형, 사회부문은 괴정동형, 용호동형, 송정동형, 감전동형, 부곡동형이 포함된다. '일탈'지역은 '적응'이나 '불일치'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단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부곡동형은 전 복지부문에 걸쳐 '일탈'현상, 즉 불량한 주·객관적인 복지수준을 나타냈고 대저동형도 경제, 주택, 보건부문에 걸쳐 '일탈'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명장동형은 경제, 주택, 보건부문에서, 용호동형은 사회 및

교육부문에서, 재송동형은 경제 및 보건부문에서 각각 '일탈'의 범주에 속했다. 보건부문이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일탈'지역이 가장 많으며 상대적으로 교육부문의 '일탈'지역은 다소 적게 나타났다.

복지부문별로 유형을 요약하면, 경제부문은 전 단위지역이 '4가지 복지유형'에 균등하게 해당되었고, 가장 많은 단위지역이 '복지'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적응'과 '일탈'의 비중은 유사하며 '불일치'지역에는 반송동형만이 속했다. 이를 통하여 부산의 경제복지수준은 객관적 환경에 비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다소 높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응'과 '불일치'지역이 '복지'와 '일탈'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부문에서 주·객관적 복지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해준다. 주택부문은 복지의 4가지 범주에 단위지역이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서비스업지역에서 제조업지역으로 갈수록 점차 '일탈'화되어 문제지역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교육부문은 '복지'지역의 비중이 다소 높고 도심과 부심에 해당하는 남포동형, 남천동형은 교육의 '일탈'현상을 나타낸 반면 교육환경이 양호한 만덕동형, 봉래동형, 금곡동형, 대저동형 등은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만족도가 낮아 '불일치'상태를 나타냈다. 주택부문과 유사하게 교육부문은 복지상태의 지역적인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부문의 복지유형은 단위지역별로 매우 상이한데 거의 '복지'상태에 편중하고 수정동형, 송정동형만이 '적응'유형에 속하고 '불일치'지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일탈'지역도 다소 분포하고 있다. 사회부문은 다른 부문과는 달리 '적응'과 '일탈'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이 '복지'와 '불일치'현상을 나타내는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적인 분포를 가진다. 또한 '복지'현상에 속하는 지역이 타 부문과 비교하여 가장 적으며, '일탈'에 해당하는 지역은 괴정동형, 용호동형, 송정동형, 감전동형, 부곡동형 등이다.

5. 요약 및 결론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영국의 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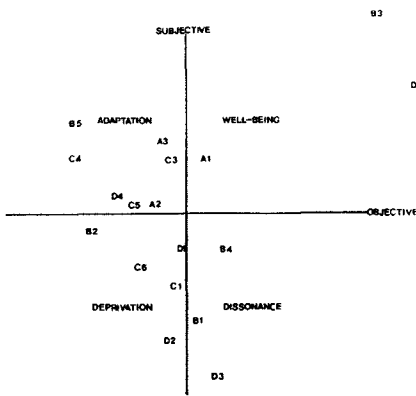


그림 18. 사회부문의 단위지역별 복지유형

Jeremy Bentham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대 모든 국가들의 염원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복지국가건설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국민이 그들 자신의 생활을 좀 더 보람있고 의미있게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란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데 있는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복지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고, 또한 물질적 풍요만으로 진정한 복지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즉 다시 말해서 경제적, 물질적 생활조건과 이 조건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복지사회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희망과 절망,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을 나타내는 주관적 지표가 있어야만 정부는 항상 부족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 최대다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지표는 주어진 환경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지를 가르쳐 주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 어떠한 것들이며 또 그 자원들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하는 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복지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객관적인 사회지표를 병행하여 부산시 복지수준의 공간적 패턴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객관적 복지공간의 비교분석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경제 및 사회·보건지표에 의한 12차 지역구분을 시도하여 모두 19개의 단위지역을 설정하였다. 단위지역별로 복지부문별 특징을 살펴보면 객관적 부문의 경우 모든 부문에 걸쳐 평균이상의 복지수준을 나타냈고 특히 주택복지수준이 가장 높게, 다음으로 교육, 사회, 경제, 보건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단위지역별 복지수준은 평균 순위지수를 기준으로 빈곤지역에 해당하는 주거밀집지역과 도시주변의 저소득지역이 평균이하의 복지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평균이상, 즉 양호한 객관적 복지수준을 나타냈다. 주관적 부문의 경우 부문간 불균형이 지역간 불균형보다 다소 심화되어

있고 경제부문은 전체적으로 평균이하의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지역간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사회부문과 주택부문은 만족도가 평균에 근접한 유사한 만족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보건부문의 만족도는 다소 높았으며, 교육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2) 상대적 우위성에 근거하여 주관적 복지수준과 객관적 복지수준을 상대복지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사회부문의 상대복지수준은 단위지역별 격차가 매우 현격하였고 보건부문은 단위지역별 상대적 우위성이 미약하였다. 그리고 주택부문, 경제부문, 교육부문의 순으로 지역적인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주·객관적 복지수준 각각의 우위성은 부문별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객관적 복지상태의 불균형을 불균형계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경제부문은 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비중이 적은 지역과 도시중심지역에서 불균형한 복지상태를 나타냈고 주택부문은 다른 복지부문에 비하여 불균형이 극심한 지역이 전혀 분포하지 않고 대부분 균형적인 복지상태를 나타냈다. 교육부문의 불균형은 심화되어 있으며 공간적인 격차도 매우 현격하였다. 특히 도시주변지역 및 공단지역에서 심한 불균형상태를 보였다. 보건부문은 균형적인 복지상태의 분포가 일반적이었고 사회부문은 불균형의 정도는 다소 미약하나 공간적 격차는 현격하게 나타났다.

3) Glatzer가 제시한 복지유형에 근거하여 부산시 복지지역을 주·객관적 복지수준에 따라 복지부문별 및 단위지역별로 유형화하였다. 경제부문은 가장 많은 단위지역이 '복지'유형에 해당되고 '적응'과 '일탈'의 비중은 유사하며 '불일치'지역에는 단지 반송동형만이 해당됨으로써 객관적 환경에 비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택부문에서는 4가지 복지유형이 균등하게 분포되었으나 서비스업지역에서 제조업지역으로 갈수록 점차 '일탈'의 비중이 커지면서 문제지역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교육부문은 일반적으로 '복지'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도심과 부심이 '일탈'현상을, 교육환경이 양호한 일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만족도가 낮은 '불일치' 상태를 나타냈다. 보건부문은 대부분 '복지'지역에 해당되었고 일부지역만이 '적응'과 '일탈'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불일치'지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부문은 '적응'과 '일탈'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가장 많았고 '복지'지역이 가장 적은 분포지역을 차지했다. 단위지역별 복지유형을 살펴보면 '복지'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불일치'지역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적응'지역과 '일탈'지역에도 다소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주·객관적 지표에 의한 부산시의 복지상태는 주·객관적 복지수준이 공간적, 부문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주·객관적 복지상태의 불균형이 전 지역에 걸쳐서 분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복지정책에 있어 분배의 우선권이 불균형적인 복지공간에 부여된다면 부산시에서 복지상태의 균형적인 분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객관적 복지수준 및 주관적 복지수준은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냈다. 부문별 객관적 복지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복지를 지역복지의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객관적인 복지수준이 낮은 지역에 공공의 개입에 의하여 분배의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보건, 교육, 주택복지의 심한 지역적 편중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지역복지정책은 지역별 객관적 복지수준 및 주관적 복지상태를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주·객관적 지표에 의한 상대적인 우위성은 복지상태의 불균형을 의미하며 이를 지역복지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이 요구되며 특히 복지유형중 '적응', '불일치', '일탈'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역복지정책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객관적 복지상태의 비교분석을 위한 지역구분을 통하여 주관적 복지상태의 평가를 위한 단위지역으로 행정동이 갖는 한계점을 해결하였고, 따라서 지역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생활권 혹은 행정지역과는 별도로 복지행정을 위한 단위지역을 복지의 공간구조에 기초하여 설정하여야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연구의 진행상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안고 수행되었는데 관찰기간이 짧고, 또한 만족도라고 하는 비가시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연구의 새로운 과제로 남는다. 또한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현실의 질과 설명의 양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로 부터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밝혀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복지공간에 관한 주·객관적 지표에 의한 연구가 더욱 다양한 지역규모나 지표를 통하여 수행되고, 또한 연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객관적 복지공간에 대한 공간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추이에 관한 새로운 연구성과를 기대한다.

필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세심하고도 적절한 지적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註

- 1)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의 상태(생활의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를 경제지표, 사회부문의 발전상태(생활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회지표라고 구분하고 사회지표는 경제지표에 비하여 보다 주관적인 인간의 삶의 질에 관한 정보(주관적인 사회지표)를 중시하며 서술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정보(객관적인 사회지표)까지도 포함하므로 사회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 2) 지역복지는 生活權과 生活圈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지역사회에 있어서 경제, 사회조건에 규정되어 지역주민이 안고 있는 생활문제를 경감 혹은 제거하거나 그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주체적인 생활전반에 관한 수준을 보장하고 보다 높이기 위한 사회적 시책과 방법의 총체로서 개념화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있어서 주민생활상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파악하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복지라는 용어는 1970년을 전후로 해서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근 20여년이 되었으나 그 본질과 체계에 관한 정리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사회가 가지는 불명확성 자체가 지역복지의 본성일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역복지가 가지는 정책적 혹은 제도론적 특성은 차치하고라도 복지에 대한 문제성으로의 인식 자체만으로도 지리학에서 이 관점에서 복지수준의 공간적 특성을 논하는 것

- 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이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로는 김안제, 1974; 김경성·박영한, 1977; 김영성, 1980; 최진석, 1984; 진옥화, 1992 등이 있고 국외의 연구로는 D.V. McGranahan, 1972; D.M. Smith, 1973; B. Liu, 1976; B.E. Cotes, 1977; F. Gehmann, 1978 등이 있다.
 - 4) 주·객관적 사회지표에 의한 비교연구에서 규모 불일치(scale discordance)문제는 객관적 사회지표가 잘 정의된 영역단위에서 수집된 개인인지의 지표가 행정적 단위의 경계와 정확하게 결속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 5) 설문조사는 설문지의 언어구사, 배열형태, 형식, 내용 등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50부를선행조사하여 설문지의 내용 및 구성을 보완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는 1994년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약 3500여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중 부적합한 것과 답변율이 약 80%이하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2939건을 표본의 사례로 하였다. 질문서법은 개인적 자기기입법을 선택하여 지역단위로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기관중 택일하여 설문지를 전달한 다음 각 세대주에게 배포하게 한 다음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여 배포된 날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회수하였다. 응답형식은 본 논문의 양적인 비교분석을 가능케 해주는 준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폐쇄형을 택하였고,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2개 문항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이 두 문항은 연구의 보조자료로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주관적인 지표변수에서는 제외되었다.
 - 6) 지역복지는 주체의 시·공간적인 차원에 따라 그 부문은 다양하고 가변적인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복지관의 차이나 복지의 지역성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문의 선정은 연구지역에서 개방식 질문법에 의하거나 이미 조사된 부문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기획원에서 발행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에 제시된 복지부문을 근거로 이 중 대도시지역의 복지측정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주택, 교육, 보건, 사회의 5개 복지부문을 선정하였다. 경제수준은 소비를 전제로 하면 인간이 필요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욕구충족 등과 상관성이 크고 복지와 삶의 질에 직결된다. 주택부문은 인구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부산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복지측정의 지표가 되고, 교육부문은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상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기회, 교육자

- 원, 교육효과 등의 사회지표로서 의의를 가진다. 보건부문은 지역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되는 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이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사회부문은 복잡한 사회구조적 변동과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다.
- 7) 타당성(validity)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나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정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측면이고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는 각각의 개인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답변이라도 의미가 상이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집단간에도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특히 같은 집단이라도 시간의 차이는 비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성(completeness)의 문제는 가능한 인간의 생활관심사의 범위를 한정짓는 것과 관련한 문제이고 효용성(utility)의 문제는 만족 혹은 불만족을 인식하더라도 자기가 처한 환경에 둔감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 주관적인 인지측정은 많은 비용과 노력에 비하여 그 댓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8) 부산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인문, 자연적 지표를 사용하여 5개 대생활권, 28개 중생활권, 211개 소생활권 등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등질지역으로 이미 지역을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구분에 사용된 지표가 지형, 지세, 하천, 도로, 행정구역, 중고등학교, 보건지소, 교통 등으로서(부산시, 1985, 부산도시기본계획, p.96) 복지지역 연구의 단위지역으로 선정하기에는 구분지표의 설정이 다소 미흡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복지지역의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을 다시 구분하였다.
 - 9) 단위지역별 평균값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M = \frac{\sum_{i=1}^n Wi(Ii) \times 100}{C}$$

(Wi: 지표Ii에 의하여 표현된 복지부문의 가중치, n: 지표의 수, C: 단위지역에 포함된 동수)

- 10) 단위지역별 평균순위지수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M = \frac{\sum_{i=1}^C Ri \times 100}{C}$$

(Ri: 각동의 평균순위, C=각 단위지역에 포함된

- 동수)
- 11) 상대복지계수 = 평균순위지수(객관적 부문)-평균값(주관적 부문)
 - 12) 주·객관적 복지간의 불균형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서 Fried는 객관적 복지상태와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두가지 이론을 제시하였다. 첫째가 Deprivational theory로서 이는 객관적인 복지수준과 주민의 주관적인 만족도와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객관적 복지수준의 질과 양을 늘리면 비례적으로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이론이고 둘째는 Expectational theory로서 객관적 복지수준의 개선은 주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크게 하고 따라서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되어 점차 요구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된다는 것이다.
 - 13) 불균형계수 = |상대복지계수|

文 獻

- 강동식, 1990, "사회지표의 개념과 체계에 관한 고찰", 제주대논문집 31, 471-514.
- 김안제, 1974, "지역간 경제적 격차에 관한 측정연구", 환경논총 1, 27-64.
- 김경성·박영한, 1977, "Economic Health의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연구", 지리학 6, 11-21.
- 김영성, 1980, "강원지역의 사회적 복리에 관한 시공간적 격차분석", 지역개발논문집 9, 47-60.
- _____, 1984, "여주지역의 사회적 복리에 관한 시공간적 변동 연구", 상명대논문집 14, 317-356.
- 김해식, 1985, "한국도시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객관적인 향상도에 대한 분석", 사회조사연구 4, 109-124.
- 최병두, 1981, "지역사회복지와 그 개선정책에 관한 연구: 경험적 고찰", 지리학 24, 55-78.
- 최진석, 1984, "충남 복리수준의 사회경제적 공간구조", 공주사대논문집, 22, 207-218.
- 진옥화, 1992, "지역별 생활지표분석을 통한 지역특성연구", 지리교육논총 27, 54-9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도시생활의 질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 Bentham, G., 1986, "Public Satisfaction and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Countries of England", *Trans. Inst. Br. Geogr.* 11, 27-36.
- Campbell, A. and Converse, P.E., 1972, *The Human Meaning for Social change*. Russell Sage Foundation.
- Coates, B.E., 1977, *Geography and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Dale, B., 1990,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Indicators in Studies of Regional Social Well-being", *Regional Studies* 14, 503-515.
- Gehmann, F., 1978, "Valid Empirical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73-109.
- Glatzer, W. & Michael, M., 1987, "Quality of Life: Concepts and Measur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9, 15-24.
- Harvey, D., 1968, "Pattern, Process and the Scale Problem in Geographical Research", *Trans. Inst. Br. Geogr.* 45, 65-75.
- Knox, P. & Cottman, M.B., 1981 "A Welfare Approach to Rural Geography: Contrasting Perspectives on the Quality of Highland Life", *Trans. Inst. Br. Geogr.* 6, 433-450.
- Kuz, T.J., 1978 "Quality of Life, an Objective and Subjective Variable Analysis", *Regional Studies* 12, 409-417.
- Land, K.C., 1975, *Social Indicators Model: An Overview*,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Liu, B., 1976,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S. Metropolitan Area: A Statistical Analysis*, Praeger, New York.
- Pacione, M., 1982, "The Use of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s of Life Quality in Hum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6, 495-514.
- _____, 1896 "Quality of Life in Glasgow: An Applied Geographical Analysis", *Environment and Planning A* 18, 1499-1520.
- Smith, D.M., 1973, *The Geography of Social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An Introduction to Territorial Social Indicators*. McGraw-Hill, New York.